

최측근 2명 유죄...트럼프 '충격과 공포'

러시아 유착·성추문 관련

21일(미국 현지시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가히 '충격의 날'로 불릴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유착 의혹,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과 관련한 핵심인물인 과거 최측근 2명이 잇따라 유죄로 결정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특검 수사의 칼날이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법률적·정치적으로 궁지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의혹들이 최대 정치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탄핵론이 대두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52)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성 추문을 막기 위해 돈을 지급했다고 유죄를 인정했고,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69)는 세금·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장은 개인 비리를 다룬 것이지만, 시 작은 모두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였다. '러시아 스캔들'을 깨는 로버트 무러 특별검사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 트럼프 '해결사' 코언의 반전... "트럼프 지시" 폭로 = 10년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용도로 건넨 돈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는 '플리바게닝'을 택했다.

그는 이날 뉴욕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선거자금법, 금융사기, 탈세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최대 65년형을 받을 뻔했지만, 유죄를 인정하고 46~63월로 감형받는 '거래'를 택했다.

코언은 이 자리에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이 불거진 여성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건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물러특검 '1호 기소' 매너포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옛 측근으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가 지난 6월 15일(현지시간) 조사를 받기 위해 워싱턴DC의 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무러 특검에 의해 최초로 기소된 인물인 매너포트는 지난달 31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서 열린 배심원단 첫 심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개인 변호사 코언 "트럼프가 성추행 입막음 돈 지급 지시" 폭로 대선 선대본부장도 세금·금융사기 혐의 유죄... 특검수사 '탄력'

에 의한 것이었다고 털어냈다. 코언은 2016년 대선 직전 당시 트럼프 후보와의 성관계를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예명 스톰미 대니얼스)의 입을 막기 위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돈이 자신과 관계없이 이뤄진 '개인 간 거래'라고 선을 그었지만, 코언이 이날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클리포드에게 돈을 건넨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코언의 선고일은 12월 12일로 정해졌다.

◇ 무러 특검의 '기소 1호' 매너포트...

"유죄" = 워싱턴의 '아웃사이드'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기여했던 매너포트는 이날 버지니아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매너포트는 세금 사기 5건, 금융사기 2건, 국외 계좌 미신고 혐의 1건 등 총 8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혐의 10건의 판결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해외 계좌에 돈을 숨기고 수백만 달러의 사기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그가 2010~2014년 해외 계좌를 통해 6500만달러를 받고, 사치품과 부동산 구입 등에 돈을 쓰며 호화생활

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2500만달러 이상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전했다.

매너포트는 최대 징역 80년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그는 외국 기관을 위한 불법 로비 활동,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추가 재판도 앞두고 있다. 매너포트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로버트 무러 특별검사의 첫 번째 기소 대상이다.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는 무러 특검 수사의 핵심인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내용이나 사법방해 혐의는 아니다. 그러나 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첫 기소 대상이 일단 유죄로 가닥이 잡힌 만큼 특검의 성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앞서 아베 총리는 '전수방어' 원칙을 위반한다는 논란 속에서 연초 시정연설에서 스탠드오프 미사일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방위성은 또한 상대방의 방공망과 지휘통신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자전에 대응한다며 이와 관련한 비용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나혼계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이와 함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성에 가칭 전자과 정책실, 자위대 통합마포 감부에 전자과영역기획관을 각각 신설할 방침이다.

2019년도 이후에 순차적으로 F-15 전투기가 상대방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렵게 하거나 전자과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보수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일, 내년 방위예산 53조7천억원 '사상최대'

7년 연속 증가...북핵 위협·전자전 대비 강화

일본의 내년도 방위예산이 사상 최고액인 53조7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말 결정할 2019년도 예산안으로 5조 2986억엔(약 53조7452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이는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1천억엔 이상 많은 것으로,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이듬해부터 7

년 연속 증가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며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 도입과 최신에 스텔스 전투기 F-35A 구입비 등이 포함됐다.

올해 들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하는 국면에도 일본 정부는 "북한 위협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을 추진할 것

이라고 산케이지는 전했다.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의 레이더 구입비 등으로만 2000억엔 이상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진출을 겨냥해 남세이(南西)제도 인근 방위를 목적으로 한다며 F-35A와 해상자위대 호위함, 잠수함 취역비도 예산에 포함할 방침이다.

적의 사정권 밖에서 발사할 수 있어 적 기지 공격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도 도입할 계획이다.

극심한 경제난에 규모 7.3 지진까지

'엎친데 덮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동북부 해안 지역에서 21일(현지시간) 오후 5시30분께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

진앙은 수크레 주 이라파 시에서 남서쪽으로 22km 떨어진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123.2km다. USGS는 지진 발생 초기 지진의 세기를 규모 7.0으로 측정했다가 나중에 7.3으로 상향조정했다. 베네수엘라 지진 당국은 그러나 규모 6.3으로 측정했다.

규모 7.0 이상의 강진은 베네수엘라의 역대 기록 가운데 가장 센 지진 가운데 하나로 분류될 정도였지만 진원이 깊어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네스토르 레베를 베네수엘라 내무부 장관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상자 발생이나 물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진앙에서 서쪽으로 400km 떨어진 수도 카라카스에서 진동이 감지되고 건물이 흔들리면서 공포에 휩싸인 시민들이 건물과 집에서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지진은 가뜰스나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공포감을 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북부 규모 7.3 지진

전했다. 빵 한 덩이를 사는 데에도 돈 한 달방이 필요할 정도의 초(超) 인플레이션을 겪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시민들이 식량이나 물적 피해를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침 베네수엘라 정부가 인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20일부터 화폐 개혁을 단행한 가운데, 지진 발생 당시 새 화폐를 뽑기 위해 은행에 줄 서 있던 시민들은 현금에 손을 얹기 전까지 대피할 수 없었다며 주저하기도 했다고 AFP는 전했다. /연합뉴스

북극 '마지막 보루' 해빙도 붕괴 시작

그린란드 북부 해안-해빙이 바닷물 드러나

북극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두꺼워 해빙(海氷)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곳에서부터 해빙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그린란드 북부 해안에서 지난 2월에 이어 이달 초에도 기온 상승과 따뜻한 바람의 영향으로 해빙이 붕괴했다. 이 해빙들은 바람을 타고 1970년대 위성을 이용한 기록이 시작된 이래 해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나갔다.

신문은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던 현상이 두 차례나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지역은 지구온난화로 해빙이 붕괴 하더라도 가장 늦게 무너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최근까지도 "마지막 해빙 지대"로 불리던 곳이다.

그린란드 본섬 최북단 모리스 재설 곳 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2월 기온은 보통 영하 20도 이상 오르지 않지만 올해 초에는 영상을 기록한 날이 열흘에 달했다. 또 이달 초에는 기온이 최고 17도를 기록하고 11노드에 달하는 강한 남풍마저 가세해 해빙 붕괴를 가져왔다.

덴마크기상연구소 기상학자 루스 모트람은 가디언과의 회견에서 "그린란드

북부해안의 거의 모든 얼음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면서 "북부 해안의 바다가 드러난 것은 이제 작"이라고 했다.

그린란드 북부 해안은 해류의 영향으로 북극 주변의 유빙이 흘러들어 쌓이는 곳이다. 평균적으로 두께가 4m가 넘고, 20m 이상으로 쌓이기도 한다. 이런 두께의 해빙은 쉽게 움직이지 않지만 지난 2월과 이달 초에는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미국국립설빙데이터센터의 수석연구원 윌터 마이어는 "얼음 두께가 얇아지는 현상은 북극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극 해빙과 기후의 변화를 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노르웨이기상연구소 과학자 토마 라베르뉴는 그린란드 북부 해안 수백km에 걸쳐 흰 얼음 사이에 파란 바닷물이 들어찬 위성 사진을 리트윗하면서 "무섭다"고 했다. 그는 떨어져 나간 해빙이 프람이나 네이아 해협을 거쳐 남쪽의 더 따뜻한 바다로 흘러들어 더 쉽게 녹게 될 것으로 봤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